

# 괴테와 쉴러의 문학적 협력

조성희\*\*

바이마르 고전주의의 기관지

『호렌』을 중심으로\*

**초록** 독일 문학사에서 바이마르 고전주의는 괴테와 쉴러, 두 작가의 동맹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이 두 사람이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력하며 상호 신뢰를 쌓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쉴러가 책임편집인으로서 창간한 종합 월간지 『호렌』(1795~1797)이다. 본 논문에서는 1794년부터 1805년 쉴러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까지 10여 년간 지속된 괴테와 쉴러의 문학적 협력에서 그 첫 국면을 재구성한다. 우선 『호렌』의 창간 과정과 쉴러가 쓴 창간사에 나타난 창간 목표를 살펴보고 『호렌』에 처음으로 발표된 두 사람의 주요 작품들을 개관한다. 이어서 『호렌』 제1호에 나란히 실린 괴테의 「독일 피난민들의 환담」과 쉴러의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에서 프랑스 혁명이라는 전대미문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두 사람의 공통된 문제의식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역시 『호렌』에 발표된 쉴러의 「소박문학과 감상문학에 관하여」를 두 사람의 서신교환과 함께 검토함으로써 쉴러가 괴테와 자신의 작가적 개성에 관한 고찰을 어떻게 소박시인과 감상시인이라는 일반론으로 확장해 나갔는지를 추적한다. 요컨대 『호렌』을 중심으로 한 문학적 협력의 초기 국면은 괴테와 쉴러가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며 내적 결속을 다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괴테, 쉴러, 바이마르 고전주의, 『호렌』, 프랑스 혁명, 미적 교육, 독일 피난민들의 환담, 소박문학, 감상문학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신입교수 연구정착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조교수

## 1. 들어가며

독일 문학사에서 짧지만 중요하고도 생산적인 시기였던 바이마르 고전주의는 괴테와 셸러, 두 작가의 동맹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sup>1</sup> 그래서 바이마르 고전주의의 시기를 아주 좁게 보면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기 시작한 1794년부터 셸러가 세상을 떠난 1805년까지로 잡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두 사람 모두 그 이전에 이미 고전주의적 경향의 작품을 각자 세상에 내놓은 바 있으므로<sup>2</sup> 괴테가 이탈리아 여행을 떠난 1786년부터 1805년까지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세기를 거치며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초월적인 문학적 전범으로 이상화되었던 ‘독일 고전주의’라는 명칭은 오늘날 대개 ‘바이마르 고전주의’로 대체됨으로써 독일의 고전주의적인 한 시기로 역사화되고 지역화되는 동시에 탈이데올로기화되었다.<sup>3</sup> 디터 보르히마이어는 ‘고전적인 것’(das Klassische)이라는 개념이 능가의 가능성, 예술적 진보, 역사적 패러다임 전환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본 프리드리히 쉐레겔의 의미에서 바이마르 고전주의를 “역사의

- 
- 1 페터 안드레 알트는 괴테와 셸러 간의 “동맹 Bündnis”을 바이마르 고전주의의 외적 전제 조건으로 보며 이 둘의 관계가 창조력의 응집과 상호 간의 주의집중이란 측면에서 여타의 유사한 사례들을 능가하는 유일한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두 사람 간 동맹의 성격에 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Peter-André Alt (2009), *Schiller. Eine Biographie. Leben-Werk-Zeit*. Bd. 2, München: Verlag C. H. Beck, pp. 154-155.
  - 2 「타우리스의 이피게네에」(Iphigenie auf Tauris, 1787), 「에그몬트」(Egmont, 1788), 「토르콰토 타소」(Torquato Tasso, 1790) 등 괴테가 이탈리아 여행 중 작업한 고전주의 희곡 작품들과 「비극 예술에 관하여」(Über die tragische Kunst, 1792), 「칼리아스, 또는 미에 관하여」(Kallias, oder über die Schönheit, 1793), 「우아함과 품위에 관하여」(Über Anmut und Würde, 1793) 등 셸러의 고전주의적 미학 저술 다수는 모두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교류하기 이전에 집필, 발표되었다.
  - 3 Dieter Borchmeyer (1998), *Weimarer Klassik. Portrait einer Epoche*. Weinheim: Beltz Athenäum, pp. 39-40; Cornelia Zumbusch (2019), *Weimarer Klassik. Eine Einführung*, Stuttgart: J.B. Metzler, pp. 5-8.

일부가 되었으며 역사적으로 조건지어진 문화적, 미학적 패러다임<sup>4</sup>으로 본다. 즉, 우리는 바이마르 고전주의를 유럽의 인본주의 전통 및 계몽주의와의 연속선상에서 보아야 하며 예술창작의 초시간적 모델로 이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코르넬리아 춤부쉬 역시 이 개념을 규범적 의미로 쓰지 않는다면 굳이 ‘바이마르 고전주의’라는 명칭을 독일문학사에서 지우거나 그 대안을 찾으려 애쓸 필요 없이 20세기 초에 병렬적으로 등장한 수많은 문예사조와 마찬가지로 이 개념을 역사적인 의미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이다.<sup>5</sup>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보르히마이어와 춤부쉬의 입장을 따르면서 바이마르 고전주의의 초기 국면을 괴테와 셸러의 문학적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젊은 베르터의 고뇌』(1774)로 일약 전 유럽에서 명성을 얻고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으로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명망을 누리고 있던 괴테와 그보다 열 살이나 어린, 『도적떼』(1781)의 작가 셸러가 서로 가까워지게 된 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794년에 이르러서이다. 1794년 7월 20일 일요일 두 사람은 예나에서 열린 자연연구회의 강연회에서 우연히 만나 ‘식물의 변형’을 주제로 열띤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괴테가 후일 “행운의 사건”으로 회고하는 이날 이후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진다.<sup>6</sup> 두 사람은 바이마르

4 Dieter Borchmeyer (1998), p. 38.

5 춤부쉬는 “이상주의 문학 *Literatur des Idealismus*”이나 “1800년경 um 1800” 같은 대안적 개념을 소개하고 이 개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Cornelia Zumbusch (2019), pp. 8-10. 문학사적 용어와 관련하여 우리 학계에서는 김수용이 만프레트 빈트푸어 (Manfred Windfuhr)의 ‘독일 이상주의 문학’이라는 용어를 수용한 바가 있다. 김수용은 이 시기의 문학이 ‘이상적’ 세계상을 바탕으로 하여, 이상적이지 못한 당대의 현실에 대한 강한 ‘부정’의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1800년을 전후한 약 60년간의 독일문학을 이상주의 문학으로 규정한다. 김수용(1998), 『예술의 자율성과 부정의 미학: 독일 이상주의 문학 연구』, 연세대학교 출판부, pp. 7-24.

6 2.1.에서 상술하겠지만 이날 두 사람의 열띤 대화 가능했던 것은 그전에 잡지 『호펜』의 발간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과 이에 대한 수락을 편지로 주고받으며 이미 서로 교감이 있었던 덕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괴테는 노년에 “행운의 사건”(Glückliches Ereignis)이라는 제목의 짧막한 글에서 이날 셸러와의 만남을 회고한다. HA 10, pp. 538-542. 본 논문

와 예나 사이를 자주 오가기도 했고 쉴러가 1799년 말 바이마르로 이주한 후에는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아서 서신 왕래가 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11년간 무려 천 통 이상의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집중적으로 교류했다. 쉴러가 책임편집인의 역할을 맡아 발간한 잡지 『호렌』(Die Horen, 1795~1797)에 괴테가 기고문을 싣고 편집위원으로서 조력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두 사람의 문학적 협력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비록 쉴러의 때 이른 죽음으로 두 사람의 협력은 10여 년 만에 중단될 수밖에 없었지만, 노년의 괴테는 쉴러와의 관계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그리고 쉴러의 자극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 그에게 『호렌』과 『문예연감』에 실을 원고가 부족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괴난민들의 환담』을 쓰지 않았을지도, 쉘리니를 번역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문예연감』에 실린 것처럼 발라드와 노래들 전부를 짓지 않았을 것이며 「비가」는 적어도 그 당시에는 인쇄되지 않았을 것이고 「크세니엔」도 흥얼거리지 않았을 것이며 일반적으로든 특수하게든 여러 가지가 다른 상태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섯 권의 편지들은 이에 대해 많은 것을 암시해 줍니다.<sup>7</sup>

위 인용문에서 괴테는 쉴러가 타계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그와 주고 받은 편지를 출판하게 된 것을 계기로 쉴러가 자신의 작품 활동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괴테가 쉴러와 함께하

문에서 괴테 전집에서의 인용은 일반적인 괴테 전집 인용 방식에 따라 전집의 약호, 권수, 쪽수의 순으로 인용한다.

7 1829년 1월 10일에 괴테가 크리스토프 루트비히 프리드리히 쉘츠(Christoph Ludwig Friedrich Schultz)에게 보낸 편지. “Goethes Äußerungen zu den »Römischen Elegien«,” *goethezeitportal*, 2022.3.19. <http://www.goethezeitportal.de/wissen/projektepool/goethe-italien/roemische-elegien/goethes-aeusserungen.html>

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나열하고 있는 작품들은 결국 셸러와의 협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하엘 뵐러는 괴테와 셸러의 관계를 ‘바이마르의 쌍둥이 신’(Dioskuren von Weimar)이라는 표현이 보여 주는 것처럼 민족적 대표성을 갖는 기념비적인 것으로 고양하고 신성시하는 ‘우정의 신화들’에 거리를 두며 문학사회학적 관점에서 둘의 관계가 작가라는 직업을 배경으로 해서 발전해 나간 것으로 본다.<sup>8</sup> 필자 역시 이 글에서 괴테와 셸러의 우정이라는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의 발전 과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당대의 문학계에서 비중 있는 두 작가가 작품 활동을 매개로 문학적 협력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 과정과 종합 월간지 『호렌』을 중심으로 한 초기의 협력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괴테와 셸러, 두 작가의 방대한 작품 세계는 한국 독문학계에서도 개별 작품 중심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두 작가의 긴밀한 교류를 통한 바이마르 고전주의의 형성 과정이나 상호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별 작품이 아니라 바이마르 고전주의라는 맥락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괴테와 셸러가 독일 문학사에서 정전화되는 과정을 재구성한 고규진의 연구와 괴테와 셸러의 서로 다른 예술 창작 원칙을 탐색하는 인성기의 연구를 들 수 있다.<sup>9</sup> 본 논문은 괴테와 셸러의 협력을 통한 바이

8 괴테와 셸러의 관계를 둘러싼 ‘우정의 신화들’과 이러한 신화를 파괴하려는 반대 흐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Michael Böhler (1980), “Die Freundschaft von Schiller und Goethe als literatursoziologisches Paradigma,” *Internationales Archiv für Sozial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5, pp. 34-37. 뵐러는 두 사람의 관계를 “도구적으로 분화된 근대적인 우정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Michael Böhler (1980), p. 49.

9 고규진의 연구는 게르비누스의 민족문학사를 중심으로 19세기에 괴테와 셸러가 바이마르 고전주의의 대표자로 정전화되는 역사적 과정을 재구성한다. 고규진(2011), 「문학정전의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 연구: “바이마르 고전주의”를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54, pp. 97-112. 인성기의 연구는 셸러의 『호렌』 창간사와 「소박문학과 감상문학에 관하여」에 나타난 셸러의 역사철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괴테와 셸러의 서정시와 셸러의 드라마 「마리아 슈트아르트」를 분석함으로써 두 작가의 서로 다른 예술 창작 원칙을 탐색한다. 인성기(2010), 「독일 고전주의 예술관의 두 기초: 괴테의 독자적 자연감정과 셸러의 대자적 역사 의식」, 『괴테연구』 23, pp. 51-74.

마르 고전주의의 형성이라는 큰 주제 가운데서 협력의 시작 부분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또한, 잡지 『호렌』을 중심으로 한 이 글의 논의를 통해 계몽주의 시대 이래로 문학 독자층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괴테와 쉴러 당대에 일종의 ‘문화 투쟁’의 장으로서 기능했던 잡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아래에서는 우선 괴테와 쉴러의 문학적 협력의 출발점이 되는 잡지 『호렌』의 창간 과정과 쉴러의 창간사에 나타난 창간 목표, 그리고 『호렌』에 처음으로 발표된 두 사람의 주요 작품들을 개관할 것이다. 이어서 『호렌』 제1호에 나란히 실린 괴테의 「독일 피난민들의 환담」(Unterhaltungen deutscher Ausgewanderten, 1795)과 쉴러의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Ü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 in einer Reihe von Briefen, 1795)에서 프랑스 혁명이라는 전대미문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두 사람의 공통된 문제의식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역시 『호렌』에 발표된 쉴러의 「소박문학과 감상문학에 관하여」(Über naive und sentimentalische Dichtung, 1795~1796)를 두 사람의 서신교환과 함께 검토해 봄으로써 쉴러가 괴테와 자신의 작가적 개성에 관한 고찰을 어떻게 소박시인과 감상시인이라는 일반론으로 확장시켜 나갔는지를 추적해 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언급된 괴테와 쉴러의 주요 작품들이 최초로 발표된 월간지라는 매체와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동료 작가와 주고받은 피드백 등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18세기 말 독일 문학의 현상이 좀 더 입체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바이마르 고전주의의 기관지 『호렌』

### 2.1. 협력의 출발점

“바이마르 고전주의의 기관지”<sup>10</sup>로 평가받는 『호렌』은 15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거의 중단 없이 『탈리아』, 『신 탈리아』 등 여러 잡지의 편집인으로 활약했던 쉴러가 마지막으로 펴낸 월간지이다.<sup>11</sup> 『호렌』은 바이마르 고전주의 미학의 핵심 강령을 담은 여러 이론적 텍스트와 주요 작품들이 최초로 발표된 지면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괴테와 쉴러가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력하며 상호 신뢰를 쌓아 나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빌리에 따르면 『호렌』 기획은 단순히 18세기 말의 수많은 잡지 가운데 또 하나가 창간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필가들과 그들의 독자들을 하나의 문학적 동맹으로 제도적으로 결합하려는, 즉 “문학적 창작 공동체”<sup>12</sup>를 형성하려는 시도이다. 두 사람의 우정이 시작된 데에는 명백히 괴테와 그의 독자들을 『호렌』에 끌어들이

10 Peter-André Alt (2009), p. 197.

11 1782년부터 1797년 사이에 쉴러가 펴낸 잡지를 발행연도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뷔르템베르크 색인』(*Württembergisches Repertorium*, 1782~1783), 『라인강의 탈리아』(*Rheinische Thalia*, 1785), 『탈리아』(*Thalia*, 1785~1791), 『신 탈리아』(*Neue Thalia*, 1792~1795), 『호렌』(1795~1798) Manfred Misch (1998), “Schillers Zeitschriften,” *Schiller-Handbuch* (hrsg. von Helmut Koopmann), Stuttgart: Alfred Kröner Verlag, pp. 743-757. 호프만에 따르면, 쉴러가 발간한 잡지들은 예술과 문학의 도덕적·정치적 영향력을 중시하는 (후기) 계몽주의적 입장에서 바이마르 고전주의의 자율성 미학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쉴러의 미학적·문학적 입장은 점점 섬세해지고 고상해지는 반면, 독자 대중의 수준은 이를 따라오지 못해 마지막 잡지 『호렌』에 이르면 결국 고전주의적 요청과 독자들의 관심 및 욕구 사이의 간극은 더욱 벌어지게 된다. Michael Hofmann (2005), “Schiller als Herausgeber von Zeitschriften,” *Schiller-Handbuch. Leben-Werk-Wirkung* (hrsg. von Matthias Luserke-Jaqui), Stuttgart u. Weimar: J.B. Metzler, pp. 520-521.

12 Michael Böhler (1980), p. 49.

러는 쉴러의 이해타산이 작용했으며 괴테도 이를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쉴러가 출판업자 코타(Cotta)와 잡지 발행 조건에 대해 협상하면서 필자들에게 지불할 원고료를 일반적으로 편당 15~25탈리로 책정한 데에 반해, 괴테에게는 인쇄 전지 한 장당, 즉 책으로 16쪽당 40탈리라는 특별 대우를 하기로 한 점에서도 괴테를 반드시 동인으로 확보하려는 쉴러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sup>13</sup>

1794년 6월 13일 쉴러는 괴테에게 『호렌』의 편집위원이자 필진으로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담은 매우 공손하고 격식 있는 편지를 보내고, 6월 24일 괴테는 쉴러의 제의를 흔쾌히 수락하는 답장을 보낸다(BW 11-12).<sup>14</sup> 이렇게 쉴러가 적극적으로 괴테에게 다가가는 첫걸음을 내딛기 전에도 두 사람은 몇 번 만난 적은 있으나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고 아직 서로 서먹한 사이였다. 쉴러가 보기에 호의적인 운명이 천재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 덕분에 일찍이 문학적 명망과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를 누려 온 괴테는 그에게 부러움과 시기심을 불러일으켰고, 괴테 입장에서는 슈투름 운트 드랑(Sturm und Drang)의 격정성이 너무 강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도적떼』의 작가 쉴러에게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에 두 사람이 가까워질 만한 조건은 충분히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 1788년 이탈리아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 괴테는 신분이 낮은 크리스티아네 불피우스(Christiane Vulpius)와의 동거로 인해 세간의 가십거리가 되면서 바이마르 사교계에서 고립되었고, 그가 열정을 바친 자연 연구도 별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반면, 쉴러는 희곡 『돈 카를로스』(*Don Karlos*, 1787), 소설 『강령술사』(*Der Geisterseher*, 1787~1789) 등으로 작가로서도

13 Peter-André Alt (2009), p. 197.

14 본 논문에서 괴테와 쉴러가 주고받은 편지(Briefwechsel zwischen Schiller und Goethe in den Jahren 1794 bis 1805)는 만프레트 베허(Manfred Beetz)가 편집한 뮌헨판 괴테 전집(MA) 8(1)권에서 인용한다. 이하 인용 시 본문 안에 BW라는 약호와 함께 쪽수만 표기한다.

성공을 거두고 귀족 출신 여성 샤를로테 폰 롱에펠트(Charlotte von Lengfeld)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괴테의 추천으로 예나 대학에서 역사학 교수직도 얻어 그곳의 지식인들과 폭넓게 교류하면서 명성을 쌓아 가고 있었다.<sup>15</sup> 이런 상황에서 괴테 자신이 작센-바이마르-아이제나흐 공국의 재상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예나로 초빙한 철학자 피히테, 역사학자 볼트만(Karl Ludwig Woltmann)은 물론 빌헬름 폰 훔볼트까지 이미 편집위원으로 확보한 채 『호렌』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는 쉴러의 공손한 부탁에 괴테는 “기쁘게, 온 마음을 다해”(mit Freuden und von ganzem Herzen)(BW 11) 편집위원회의 일원이 되겠다며 승낙한다.<sup>16</sup> 이렇게 해서 서신교환과 문학적 협력을 시작한 두 사람은 1805년 쉴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11년 동안 천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함께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게 된다.

## 2.2. 쉴러의 창간사

문학, 철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이삼십 명의 지식인들에게 동참을 요청하는 초대장을 보내어 필진을 확보한 쉴러는 당대에 영향력이 컸던 『일반 문학신문』(*Allgemeine Literatur-Zeitung*) 1794년 12월 10일자에 잡지의 성격과 발행 목적을 밝히는 창간 예고문(Ankündigung)을 신는다.<sup>17</sup>

- 
- 15 쉴러가 괴테에게 『호렌』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기 전까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페터 안드레 알트(2015), 김홍진·최두환 역, 『쉴러 2』, 아카넷, pp. 237-250; 뤼디거 자프란스키(2017), 호모포에티카 역, 『괴테: 예술작품 같은 삶』,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pp. 515-526.
- 16 뤼디거 자프란스키는 괴테가 피히테의 『전체 학문론의 기초』(*Grundlage der gesamten Wissenschaftslehre*, 1794)를 읽은 후 그에게 보낸 편지의 한 대목을 소개하면서 괴테가 피히테 덕분에 쉴러의 철학적인 면을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뤼디거 자프란스키(2017), pp. 520-522.
- 17 본 논문에서 쉴러의 창간 예고문은 롤프 페터 얀츠(Rolf-Peter Janz)가 편집한 프랑크푸르트판 쉴러 전집 8권에서 인용한다. 이하 인용 시 본문 안에 A라는 약호와 함께 쪽수만 표기한다. Friedrich Schiller (1992), “Ankündigung. Die Horen, eine Monatschrift, von

책임편집인으로서 쉴러가 쓴 이 창간사에는 바이마르 고전주의의 기본적인 입장이 잘 드러난다. 쉴러는 우선 시대 상황을 언급하며 자신이 펴낼 잡지의 비정치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프랑스 대혁명의 여파로 실질적인 전쟁의 위협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사고 모임에서조차 정치적인 견해와 이해관계에 따라 일종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정치적 혼란”의 와중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 즉 “불순한 당파적 정신의 낙인이 찍힌 것”(A 1002)과 같은 정치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엄중한 침묵”(A 1001)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쉴러가 표방한 비정치성을 정치적 무관심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쉴러는 혁명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돌아온 지인들로부터 파리의 상황을 생생히 전해 들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일간지 『파리 저널』(*Journal de Paris*)과 혁명정부의 기관지 『세계신보』(*Le Moniteur universel*)를 열독하여 파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의 진행 상황과 심지어 국민공회의 토론 내용까지 상세히 알고 있었다. 쉴러가 자신이 발행하는 잡지에서 당대의 정치 현실을 다루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문학의 과제는 민감한 정치 현안을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그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sup>18</sup> 다른 한편

---

einer Gesellschaft verfaßt und herausgegeben von Schiller,” *Friedrich Schiller. Werke und Briefe in zwölf Bänden, Bd. 8, Theoretische Schriften* (hrsg. von Rolf-Peter Janz), Frankfurt am Main: Deutscher Klassiker Verlag, pp. 1001-1005.

- 18 많은 독일 지식인들과 비슷하게 쉴러 역시 혁명 초기에는 혁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었지만 1792년 9월 대학살을 거치며 국민공회가 과격한 자코뱅파에 좌우되고 프랑스의 대외정책이 팽창적 성격을 띠게 되자 점차 혁명에 거리를 두게 된다. 쉴러는 이후 혁명에 대해 점점 더 부정적인 입장을 갖게 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1792년 8월 파리의 입법의회는 열여섯 명의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쉴러를 자유를 위한 투쟁에 공헌한 프랑스의 명예시민으로 임명한다. 프랑스 혁명과 쉴러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Peter-André Alt (2009), pp. 111-125; 페터 안드레 알트(2015), pp. 172-194. 총 네 권, 2,3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이 역서는 아주 충실하고 좋은 번역이나 해당 부분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프랑스 대혁명기의 혁명 정부를 시기에 따라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로 구분하지 않은 것이다. 역서에서 『국민일보』로 옮긴 프랑스 일간지는 『세계신보』로 번역했는데 원서에서 제목을 ‘Moniteur universel’로 표기해서 이를 따랐다. 역서는 이 신문의 전체 이름 ‘Gazette nationale ou Le Moniteur universel’ 중 앞부분을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으로 그가 정치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것은 단순히 비정치적인 입장 때문만은 아니고 1788년 프로이센의 검열 강화 조치 등 주변국의 상황을 지켜본 입장에서 검열 당국을 의식한 결과일 수도 있다.<sup>19</sup>

『호렌』은 현실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대신 역사를 참조하여 과거의 세계를 규명하고 철학의 도움으로 미래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 그리고 고귀한 인간성의 이상으로 합당한 각각의 특성들을 모으고 나아가 더 좋은 개념들, 더 순수한 원칙들, 더 고귀한 풍습들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유형적이면서도 진지하게” 목표를 추구하는 가운데, 여러 집필자들이 각자 그 목표에 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를지라도 “진정한 인간성 진흥”(A 1002)을 추구하는 점에 있어서는 한뜻이라고 밝히며 쉴러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아름다움을 진리의 매개자로 만들고 진리를 통해 아름다움에 지속적인 토대와 더 높은 품위를 부여하는 데에 애쓸 것이다.”(A 1002) 이러한 창간 목표는 『호렌』 첫 호에 실리게 될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에서 쉴러가 주창한 바, 즉 “아름다운 예술”을 통한 인간성 함양의 이상을 연상시킨다.<sup>20</sup>

이어서 쉴러는 “품위와 질서, 정의, 평화가 곧 이 잡지의 정신이자 규칙이 될 것”(A 1003)이라고 천명하며 잡지의 제목에 대해 거론한다. ‘호렌’(Horen), 희랍어로 ‘호라이’(Hōrai)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계절의 여신들로 율법의 여신 테미스와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세 자매, 즉 질서의 여신 에우노미아(Eunomia), 정의의 여신 디케(Dike), 평화의 여신 에이레네(Eirene/Irene)를 말한다. 질서, 정의, 평화라는 가치는 일차적으로 자의적이고 무분

19 페터 안드레 알트(2015), p. 308.

20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 제9편지 참조. Friedrich Schiller (1992), “Ü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 in einer Reihe von Briefen,” *Friedrich Schiller. Werke und Briefe in zwölf Bänden, Bd. 8, Theoretische Schriften* (hrsg. von Rolf-Peter Janz), Frankfurt am Main: Deutscher Klassiker Verlag, pp. 582-587. 본 논문에서 쉴러의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는 프랑크푸르트판 쉴러 전집 8권에서 인용한다. 이하 인용 시 본문 안에 E라는 약호와 함께 쪽수만 표기한다.

별한 폭력과 무질서로 혼돈에 빠진 프랑스 혁명의 상황에 대한 안티테제로 볼 수 있겠지만 쉴러는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대신 그는 비너스의 탄생 신화를 소개하며 이로부터 호렌 여신들이 구현하고 있는 가치와 미의 관계를 이끌어 낸다. 신화에 따르면 갓 태어난 비너스가 키프로스 섬에 처음 나타났을 때 바로 이 계절의 여신들이 그녀를 맞이해서 여신의 의상을 입혀주고 치장해서 신들의 무리로 데려갔다고 한다. 쉴러는 이 이야기에 다음과 같은 암시가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아름다움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규칙을 따라야 하며 오로지 법칙성을 통해서만 올림푸스의 한 자리, 즉 불멸성과 도덕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을 만큼 품위 있게 될 수 있다.”(A 1003) 미적인 것에서 규칙과 법칙성을 강조함으로써 쉴러는 바이마르 고전주의의 핵심적인 목표 중 하나를 천명하고 있는 셈이다.

### 2.3. 괴테와 쉴러의 주요 기고문

“정치적으로 분열된 세계를 진리와 아름다움의 깃발 아래 다시 통합하는 것”(A 1001-1002)을 목표로 내세운 『호렌』은 문학, 철학, 역사, 예술 이론 등 다양한 분야의 기고문들을 두루 신는다. 1795년부터 1797년까지 3년간, 월간으로 발행되는 호(Stück)를 매 분기(세 달)마다 권으로(in Quartalsbänden) 묶어서 총 12권까지 나온 『호렌』에 실린 글들은 실로 다양하다. 잡지에 실린 기고문들을 그 성격에 따라 크게 분류해 보면, 1) 쉴러 자신을 포함하여 피히테, 헤르더, 하인리히 마이어, 프리드리히 야코비, 빌헬름 폰 훔볼트, 아우구스트 빌헬름 슐레겔 등의 이론적인 텍스트와 2) 괴테, 쉴러, 헤르더, 힐덜린, 카롤리네 폰 볼초겐(Caroline von Wolzogen) 등의 문학 작품, 그리고 3) 슐레겔, 괴테, 포스(Voß), 크네벨(Knebel) 등의 번역물로 나눌 수 있다.<sup>21</sup> 잡

21 이론적인 텍스트는 철학, 역사, 문학 및 예술 이론 등을 포괄한다. 본문에서는 이 시기 독일 지성사의 주요 인물들만 언급했지만, 그 밖에도 많은 집필자들이 호렌에 글을 기고했다. 『호렌』의 권호별 작품 목록은 다음을 참조. Friedrich Schiller, *Die Horen*, wikisource,

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호렌』의 첫 호인 1795년 1권 1호의 목차만 일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I. 편지시 Epistel
- II.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해 Ü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
- III. 독일 피난민들의 환담 Unterhaltungen deutscher Ausgewanderten
- IV. 진리에 대한 순수한 관심의 활성화와 고양에 관해 Über Belebung und Erhöhung des reinen Interesse für Wahrheit<sup>22</sup>

Inhalt des ersten Stückes.	
I	Seite 1
II	Ü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 — 7
III	Unterhaltungen deutscher Ausgewanderten. — 49
IV	Uebers Belebung und Erhöhung des reinen Interesse für Wahrheit. — 79

[그림 1] 『호렌』 1호 목차

위에 인용한 목차에서 볼 수 있듯 『호렌』의 특기할 만한 점은 처음 기고문을 실을 때 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혹 독자들이 괴테의 글을 쉴러의 것으로, 또 그 반대로도 오인하는 경우가 있었다.<sup>23</sup> 독자들이 글의 내용 자체에 집중하기를 원했던 쉴러는 우선 익명으로 글을 게재하는 대신 매년 말 마지막 호에 그해의 전체 기고문 목록을 필자

2022.3.19. [https://de.wikisource.org/wiki/Die\\_Horen](https://de.wikisource.org/wiki/Die_Horen) 쉴러가 동참을 호소하는 초대장을 보낸 인사들과 주요 기고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페터 안드레 알트(2015), pp. 305-306, 310-313.

22 [그림 1]처럼 『호렌』 전권의 스캔본은 오픈액세스 자료인 독일 빌레헬트 대학 도서관의 디지털 장서에 포함되어 있다. Friedrich Schiller (1795-1797), *Die Horen*, Digitale Sammlungen, Universität Bielefeld, 2022.2.17. [http://ds.ub.uni-bielefeld.de/viewer/resolver?urn=urn:nbn:de:0070-disa-2104386\\_001\\_10](http://ds.ub.uni-bielefeld.de/viewer/resolver?urn=urn:nbn:de:0070-disa-2104386_001_10)

23 예컨대 괴테의 「문학적 상퀼로트주의」(Literarischer Sansculottismus)를 쉴러의 글로, 쉴러의 시 「세상의 분배」(Die Teilung der Erde)를 괴테의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에 대해 쉴러는 괴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언급하고 있다. Michael Böhler (1980), p. 57.

의 이름과 함께 실었다.<sup>24</sup> 예컨대 1795년 4권 12호 말미의 목록을 보면 1호에 실린 글의 필자가 괴테(I, III), 쉴러(II), 피히테(IV)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호렌』에 실린 쉴러와 괴테의 주요 작품들만 일별해 보겠다. 쉴러는 자신이 발간한 잡지에 주로 미학 논문과 시를 발표했는데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와 「소박문학과 감상문학에 관하여」는 그의 이론적 주저에 해당한다.<sup>25</sup> 『호렌』에 발표된 쉴러의 시 중 그의 대표작으로 들 수 있는 작품은 「그림자의 왕국」(Das Reich der Schatten, 1795년 9호), 「자이스에 있는 베일에 싸인 신상(神象)」(Das verschleierte Bild zu Sais, 1795년 9호), 「세상의 분배」(Die Teilung der Erde, 1795년 11호) 등의 철학적인 시와 「비가」(Elegie, 1795년 10호) 등이다.<sup>26</sup> 그 밖에도 쉴러는 자신의 짤막한 경구시(Epigramm) 다수를 이 잡지에 실었는데 이는 편집자로서 지면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괴테는 쉴러의 요청에 따라 「독일 피난민들의 환담」, 「로마의 비가」(Römische Elegien, 1795), 「문학적 상퀼로트주의」(1795), 「벤베누토 첼리니의 자서전」(Benvenuto Cellini, 1796-1797) 등 소설과 시는 물론이고 에세이, 번역물까지 다양한 장르의 글을 실었다. 쉴러는 괴테가 당시 개작 중이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도 『호렌』에 신고 싶어 했지만, 그가 괴테를 이 잡지의 편집위원으로 초대하기 얼마 전에 이미 출판업자

24 페터 안드레 알트(2015), pp. 308-309.

25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미학 이론 관련 글들이 『호렌』에 발표되었다. 「미의 필연적인 한계에 관하여」(Von den nothwendigen Grenzen des Schönen, 1795년 9호), 「미적 풍습의 위험에 관하여」(Über die Gefahr ästhetischer Sitten, 1795년 11호), 「미적 풍습의 도덕적 활용에 관하여」(Über den moralischen Nutzen ästhetischer Sitten, 1796년 3호).

26 아우구스트 빌헬름 슐레겔 같은 비평가조차도 「그림자의 왕국」(Das Reich der Schatten)을 읽고 ‘그림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자, 쉴러는 이 시의 제목을 ‘형식의 왕국’ (Das Reich der Formen, 1800)으로 바꾸어 자신의 시집에 실었고 1804년 최종적으로 ‘이상과 삶’ (Das Ideal und das Leben)으로 변경했다. 「비가」(Elegie) 또한 1800년에 나온 두 번째 판본에서 제목을 ‘산책’ (Der Spaziergang)으로 바꾸었다. Friedrich Schiller (2004), *Sämtliche Werke in 5 Bänden, Bd. 1, Gedichte·Dramen 1* (hrsg. von Albert Meier), München: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pp. 888-889, 896; Peter-André Alt (2009), p. 272, 284.

웅어(Unger)와 출판계약을 마친 상태라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BW 16-17). 다음 장에서는 『호렌』에 실린 두 사람의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괴테와 쉴러의 문학적 협력의 양상을 살펴보겠다.

### 3. 괴테와 쉴러의 문학적 협력의 초기 국면

#### 3.1.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공통된 문제의식

『호렌』의 1권 1호에 나란히 실린 쉴러의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와 괴테의 「독일 피난민들의 환담」의 생성과정과 내용은 두 사람의 긴밀한 상호작용과 그 창조적 성과를 잘 보여 준다.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는 1795년 세 차례에 걸쳐 『호렌』의 1권 1호(첫 번째 편지부터 아홉 번째 편지까지), 1권 2호(열 번째 편지부터 열여섯 번째 편지까지), 2권 6호(열일곱 번째 편지부터 스물일곱 번째 편지까지)에 실린다. 쉴러 본인도 자신의 미학 저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며 당대어나 후대어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 「편지」는 원래 쉴러가 자신의 재정적 후원자인 슐레스비히-홀슈타인-아우구스텐부르크의 황태자, 프리드리히 크리스티안(Friedrich Christian) 공작에게 보낸 편지를 개작한 것이다. 1794년 2월 코펜하겐의 궁성에 화재가 발생해 쉴러의 편지가 소실되자 공작은 편지의 사본을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쉴러는 이를 계기로 편지의 사적인 성격은 약화하고 더 나아가 미에 대한 내재적 분석보다는 미가 갖는 효과에 중점을 두어 기존의 편지를 고쳐 쓰게 된다.<sup>27</sup> 쉴러와 괴테가 주고받은 편지를 보면, 1794년 10월 20일 쉴러는 『호렌』의 첫 호에 실을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

27 Friedrich Schiller (1992), *Friedrich Schiller. Werke und Briefe in zwölf Bänden, Bd. 8, Theoretische Schriften* (hrsg. von Rolf-Peter Janz), Frankfurt am Main: Deutscher Klassiker Verlag, pp. 1380-1381.

의 첫 부분을 괴테에게 보내고, 괴테는 10월 26일과 28일의 편지에서 각각 이 저작을 읽은 후의 만족감과 그 내용에 대한 동감을 표한다(BW 32-37).

한편 『호렌』 1, 2호에 쉴러의 ‘편지’와 함께, 이후 띠엇띠엇 4, 7, 9, 10호에 게재된 괴테의 「독일 피난민들의 환담」은 쉴러의 『호렌』 프로젝트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괴테가 쉴러의 협업 제안을 수락한 이후 두 사람은 인쇄를 맡기기 전에 서로의 원고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잡지 편집에 대해서도 긴밀히 의견을 교환했는데 괴테가 ‘환담’을 집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 역시 쉴러의 요청이었다. 괴테가 『호렌』과 관련해서 자신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말해 달라고 하자, 1794년 10월 28일자 편지에서 쉴러는 잡지의 1~3호에 게재 예정인 기고문들에서 철학적인 연구의 비중이 너무 높고 문학 작품은 부족하다면서 괴테가 쉴러와의 대화 시에 언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잖은 집정관(Prokurator) 이야기”를 소재로 작업해 볼 것을 권한다(BW 34-36). 괴테는 이러한 쉴러의 제안을 받아들여 액자소설인 ‘환담’의 틀이야기(Rahmenerzählung)부터 집필하게 되며, 쉴러가 언급한 집정관과 노(老)상인의 어린 아내 이야기는 후에 내부 이야기의 하나로 삽입한다. 괴테는 대개 작품을 집필하기 전에 미리 계획하고 초안을 잡아 둔 후 시작했던 데에 반해, 「독일 피난민들의 환담」은 이런 사전 준비 없이 바로 작업하고 『호렌』에 발표하기를 반복해서 1년 이내에 완성된다.<sup>28</su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쉴러는 『호렌』의 창간사에서 분열과 반목을 부추길 수 있는 정치적인 주제는 다루지 않겠다고 천명했지만, 이 잡지의 첫 호를 장식한 본인의 ‘미학 편지’와 괴테의 「독일 피난민들의 환담」은 일차적으로 프랑스 혁명에 대한 대응이었다.<sup>29</sup> 쉴러는 「인간의 미적 교육에

28 Reiner Wild (1998), "Einleitung," MA 4.1, p. 1041.

29 베를린의 궁정 역사장으로 활동하다 혁명에 동조하는 뜻에서 파리 여행(1792~1795)을 다녀온 후 잡지 발행인이 된 요한 프리드리히 라이하르트(Johann Friedrich Reichardt)는 『호렌』이 창간사의 선언과는 달리 현실 정치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에

관한 편지』의 두 번째 편지에서 “지금 인류의 거대한 운명을 심리(審理)하고 있는 정치 무대”(E 559)를 언급함으로써 혁명을 암시하고 있다. 다섯 번째 편지에 이르면 쉴러는 구체적인 시대 진단을 내리는데, “법을 왕좌에 세우고 인간을 마침내 목적 자체로 존중하며 진정한 자유를 정치적 결사의 토대로 만드는 물리적인 가능성”이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도덕적인 가능성이 결여되어”(E 568) 있으므로 이것은 헛된 희망일 뿐이라는 것이다. 혁명 초기 시민의 권리 문제를 “순수이성의 재판석에”(E 560) 세우는 것에 대해 환영했던 쉴러는 피로 얼룩진 자코뱅파의 공포정치를 지켜보면서 무법적이고 폭력적인 하층민의 “미개 상태로의 회귀”(Verwilderung)와 나태한 귀족계급의 “무기력”(Erschlaffung)(E 568)이라는 이중의 타락 상태에서는 혁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저 정치적인 문제를 경험 속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적인 문제를 통해 나아가야 한다”(E 560)는 쉴러의 주장은 바로 이러한 시대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데카메론』을 연상시키는 괴테의 「독일 피난민들의 환담」은 소설 속 상황 설정 자체가 프랑스 혁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1792년 10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연합군이 후퇴한 이후 혁명군이 독일로 진격해 오자 라인강 좌안에 거주하던 C 남작 부인(Baronesse von C.)의 가족과 친구들이 전화(戰禍)를 피해 라인강 우안의 소유지로 피난해 머물면서 서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기본 줄거리이다. 이 소설은, 한편으로는 쉴러가 창간사에서 밝힌 잡지의 성격에 부합하는 듯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목표에 상반되는 듯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 액자소설에 삽입된 내부 이야기들이 황당무계한 유행 이야기나 가벼운 연애담이라는 사실은 시대사적 사건들을 목격하며 정신적·심적 동요가 큰 독자들에게 “즐거운 오락을 제공한다”(A 1002)는 『호렌』의 창간 취지에 부합하는 것 같다. 그러나

대한 비판적 논조가 그 저변에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페터 안드레 알트(2015), pp. 315, 520-522. 공화제 이념을 찬양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비판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 비판은 후에 『크세니엔』(Xenien)에서 괴테와 쉴러가 그를 맹렬히 풍자하는 빌미가 된다.

소설의 틀이야기에서는 혁명을 지지하는 공화파인 칼(Karl)과 반혁명파에 속하는 추밀고문관(Geheimerat)이 마인츠의 자코벵파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인 끝에 결국 추밀고문관이 이 피난민들의 모임을 떠나는 사건이 묘사되는데,<sup>30</sup> 이런 내용은 당파성을 배제한다는 잡지의 방향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괴테가 보낸 첫 번째 원고를 읽은 쉴러 역시 바로 이 점을 의식하고 괴테에게 이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부탁할 정도였다(BW 40-41).

그러나 괴테가 이 에피소드를 거의 그대로 둔 것은 그의 의도가 각각 칼과 추밀고문관으로 대표되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추밀고문관 부부가 떠난 후 남작 부인이 하는 말에 무게를 신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모임의 좌장 격인 남작 부인은 조카 칼을 비롯한 모임의 구성원들을 나무라며 사교 모임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려면 자제할 줄 알아야 하고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며 이렇게 말한다. “모든 **사교적 교양(gesellige Bildung)**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거지?”<sup>31</sup> 그러면서 그녀는 사려 깊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대화 방식을 형성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환담」의 마지막에 신부가 들려주는 이야기로 삽입된 「메르헨」(Märchen)<sup>32</sup>이 희생과 사랑을 통한 “분열된 모든 사회 세력들의 재통합”<sup>33</sup>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면, 이 틀이야기는 대립과 반목의 시대에 자신의

30 MA 4.1, pp. 442-445.

31 MA 4.1, p. 448. [강조: 필자]

32 우리나라에서 동화(童話)는 아동문학과 동일시되지만, 독일의 메르헨(Märchen)은 예컨대 성인 또한 그 독자층에 포함되는 등 내포하는 바가 다르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독일어 음역인 ‘메르헨’을 쓰기로 한다. 장영은(2007), 「어린이를 위한 독일 메르헨: 아동문학으로서의 독일 메르헨에 대한 역사적 고찰」,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16, pp. 395-396.

33 Dieter Borchmeyer (1998), p. 251. 「메르헨」은 그밖에도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괴테 동시대의 알레고리적 해석에서부터 19세기의 전기적 해석과 민족주의적 해석 등 해석의 역사에 대한 개관은 다음을 참조. Sigrid Bauschinger (1985), “Unterhaltungen deutscher Ausgewanderten (1795),” *Goethes Erzählwerk* (hrsg. von Paul Michael Lützeler u. James E. McLeod), Stuttgart: Reclam, pp. 159-160.

특색을 내려놓을 수 있는 “체념”(Entsagung)<sup>34</sup>과 열린 대화의 전제가 되는 “사교적 교양”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미적 교육’이든 ‘사교적 교양’이든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 사람이 공통된 문제의식에서 모색한 해결책이다.<sup>35</sup> 즉 괴테와 쉴러는 각자, 또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하면 프랑스 혁명으로 인한 사회의 분열상과 무질서, 폭력을 지양하고 호렌이 의미 하듯 조화롭고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이다.

흔히 별도의 독립된 작품처럼 취급되기도 하지만 엄연히 「환담」의 일부분인 「메르헨」은 쉴러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에서 영감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 젊은이와 “아름다운 백합”으로 불리는 소녀, 등불을 든 남자, 그의 아내인 노파, 초록뱀, 거인, 도깨비불, 지하 사원의 금왕·은왕·동왕 등등 인간과 동식물, 환상적 존재를 아우르는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수수께끼 같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펼치는 「메르헨」은 가히 “상상력의 자유로운 유희의 산물”<sup>36</sup>로서 쉴러가 스물여섯 번째 편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미적 가상”(ästhetischer Schein)(E 661)의 실례라 할 만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에서는 젊은이로 대표되는 감각적 현실세계와 아름다운 백합으로 대표되는 초감각적 이상세계가,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조력 속에, 특히 초록뱀의 희생을 통해 결합함으로써 대립적 요소가 조화와 합일을 이룬다.<sup>37</sup> 백합에 대한 뜨거운 정열로 인해 죽은 젊은이를 되살리고 무수한 보석 조각으로 변

34 MA 4.1, p. 447.

35 울리히 가이어(Ulrich Gaier)와 베르트 비테(Bernd Witte)처럼 「환담」을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와 대립시키며 괴테와 쉴러의 견해 차이를 강조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Reiner Wild (1998), pp. 1043-1045. 물론 세부적인 입장 차이를 따져 볼 수 있지만, 「호렌」이라는 공동 작업의 틀을 고려할 때 차이점보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36 Reiner Wild (1998), p. 1049.

37 이관우(2014), 「괴테의 『동화』 고찰: 대립의 극복을 통한 이상세계의 구현」, 『독일언어문학』 65, pp. 143-166.

해 강의 양안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뱀의 희생과 사랑 덕분에 젊은이와 백합은 사랑을 이루고 이 둘이 새 왕과 왕비가 되어 이룩하는 왕국은 “미적 가상의 국가”만큼이나 유토피아적이다.<sup>38</sup> 이렇듯 「독일 피난민들의 환담」은 쉴러의 원고 청탁에서 비롯되었으며 괴테가 쉴러의 미학 사상과 정신적으로 대결하는 과정에서 나온 작품이라는 점에서 쉴러와 괴테의 문학적 협력의 첫 결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3.2. 차별화를 통한 정체성 강화: 소박 시인과 감상 시인

괴테의 「로마의 비가」와 쉴러의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의 마지막 부분, 이 두 가지 글만 나란히 실린 『호렌』 6호(1795)를 두고 두 사람이 “켄타우로스”(Centaur)라고 부른 것은 의미심장하다.<sup>39</sup> 반인반수의 켈타우로스라는 지칭은 일차적으로 완전히 상반된 성격의 두 작품이 한 지면에 발표된 것을 재치 있게 표현한 것이지만 나아가서 두 시인이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여행에서 갓 돌아온 괴테가 열여섯 살 연하의 크리스티아네 불피우스와 나눈 사랑의 체험이 반영된 연작시 「로마의 비가」는 헤르더와 칼 아우구스트 대공 등 주변 사람들이 출판을 말릴 정도로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에로틱한 내용을

38 카타리나 몸젠(Katharina Mommsen)은 「메르헨」이 쉴러의 미학 편지에 대한 일종의 후기로서 인간성을 고귀하게 하고 새롭게 하려는 쉴러의 모든 철학적 노력이 유토피아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주장한다. 지그리트 바우싱어 역시 몸젠의 견해를 따르며 ‘형성하는 사랑’의 찬미로 끝나는 「메르헨」의 결말은 실제 현실의 삶에서는 불가능하고 오직 메르헨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본다. 필자 역시 두 연구자의 견해에 동의한다. Sigrid Bauschinger (1985), pp. 164-165. 한 가지 덧붙이자면, 쉴러 본인도 마지막 편지를 맺으면서 “미적 가상의 국가”가 실제로는 “몇 안 되는 탁월한 모임에서만(in einigen wenigen auserlesenen Zirkeln)”(E 676) 존재한다고 말함으로써 그 이상적 성격을 의식하고 있다.

39 ‘켄타우로스’라는 명명을 먼저 한 것은 괴테이지만 두 사람의 서신교환에서 이 표현을 실제 자주 쓰고 있는 사람은 쉴러이다. BW, p. 81, 84, 93; MA 8.2, p. 167.

담고 있어서 결국 제2 비가와 제16 비가를 제외하고 『호렌』에 실리게 되는데 이 작품은 무엇보다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하는 괴테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sup>40</sup> 한편, 유희충동(Spieltrieb), 미적 정조(ästhetische Stimmung), 미적 가상(ästhetischer Schein) 등 추상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미적 국가”(der ästhetische Staat)(E 674)의 이상을 제시하고 있는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는 철학적 사상가로서 ‘이념’을 중시하는 쉴러의 면모를 잘 보여 준다.

‘켄타우로스-호렌’은 두 사람의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이자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 쉴러는 자신과 괴테의 시인으로서의 차이에 관한 생각을 역사철학적인 차원으로까지 발전시켜 「소박문학과 감상문학에 관하여」를 집필하게 된다. 소박성(das Naive)과 감상성(das Sentimentalische)이라는 대립적인 개념 쌍의 단초는 이미 두 사람 간의 서신교환이 막 시작된 초기에 나타난다. 1794년 8월 23일 쉴러는 괴테에게 그의 정신의 발전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한 장문의 편지를 보내는데 괴테는 자신에 대한 찬사가 담겨 있는 이 편지를 기분 좋은 생일선물로 받아들인다(BW 16).<sup>41</sup> 쉴러가 쓴 편지의 한 대목을 보자.

만일 당신이 그리스인으로, 단지 이탈리아인으로라도 태어났더라면, 그래서 이미 요람에서부터 탁월한 자연과 이상적인 예술이 당신을 에워싸고 있었다면, 당신의 길은 무한히 단축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전혀 불필요한 것이 되었을지도 모르지요. 당신은 사물들을 처음 직관하면서 이미 필

40 여전히 많이 읽히는 함부르크 판본에 이 두 편이 제외된 스무 편만 실려 있는 것을 보면, ‘비가’(Elegien)라는 제목으로 실린 『호렌』 판본은 현재까지도 그 영향력을 잃지 않은 셈이다. 반면, 가장 최근에 나온 프랑크푸르트 판본에는 괴테의 친필원고에 남아 있는 원본(Erotica Romana)과 『호렌』 판본이 나란히 실려 있다. FA 1, pp. 392-439, 1083-1091.

41 연구문헌들에서 흔히 8월 23일자 쉴러의 편지를 ‘생일 편지’(Geburtstagsbrief)로 부르는 것은 8월 27일자 답장에서 괴테가 그 편지를 생일선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알트는 이 편지를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는 편지”(ein Werbungsschreiben)로 평가한다. Peter-André Alt (2000), p. 165.

연적인 것의 형식을 수용했을 것이며 당신의 첫 경험과 더불어 당신 내면에 위대한 양식이 발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독일인으로 태어났고, 당신의 그리스적 정신이 이러한 북구의 피조물 속으로 던져졌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스스로 북구의 예술가가 되거나, 아니면 현실이 당신에게 주지 않은 것을 사고력의 도움으로 당신의 상상력에 보충해 주거나, 그래서 말하자면 내면에서 출발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를 낳는 것 이외의 다른 선택지가 남아 있지 않았습시다(BW 14).

괴테를 때늦게 태어난 그리스인, 그리스 정신을 가진 독일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대목은 「소박문학과 감상문학에 관하여」에서 아름다운 자연에 에워싸여 있었던 고대 그리스인들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에 대해 언급하는 대목을 연상시킨다.<sup>42</sup> 위의 인용문에 이어지는 대목에서 쉴러는 ‘북구의 그리스인’으로서 괴테가 겪어야 했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괴테는 외부 세계로부터 내면세계를 형성하는 시기에 어쩔 수 없이 거친 북구의 자연을 받아들여야 했으며 그 자연의 결함을 그의 천재적 조형 정신이 창조해 낸 더 나은 표본에 따라 수정했는데, 이는 개념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다. 따라서 쉴러가 보기에 괴테는 “직관에서 추상적 사고로” 넘어갈 뿐만 아니라 거꾸로 “개념을 다시 직관으로” 전환하고 “사고를 감정으로”(BW 14-15) 변화시키는 등 더 많은 작업 과정을 거쳐야 했다는 것이다. 쉴러의 이 편지에는 물론 새로 발간하는 잡지의 성공을 위해 문학계에서 영향력이 큰 괴테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쉴러의 찬사가 단지 허울 좋은 미사여구에 그치는 것이

42 Friedrich Schiller (1992), “Über naive und sentimentalische Dichtung,” *Friedrich Schiller. Werke und Briefe in zwölf Bänden, Bd. 8, Theoretische Schriften* (hrsg. von Rolf-Peter Janz), Frankfurt am Main: Deutscher Klassiker Verlag, pp. 724-727. 본 논문에서 쉴러의 「소박문학과 감상문학에 관하여」는 프랑크푸르트판 쉴러 전집 8권에서 인용한다. 이하 인용 시 본문 안에 NS라는 약호와 함께 쪽수만 표기한다.

었다면 괴테가 이 편지를 두고 “내 존재를 총괄한다”(die Summe meiner Existenz ziehen)(BW 16)는 평가를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괴테의 답장을 받고 며칠 후 8월 31일에 쓴 편지에서 쉴러는 두 사람이 걸어온 행로가 너무나 달랐기에 지금보다 더 일찍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mit Nutzen)(BW 18) 함께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뒤늦게 이제야 괴테와 친분을 쌓게 된 아쉬움을 달랜다. 상대방은 높이고 자신은 낮추는 겸양의 태도로 쉴러는 자신과 괴테의 정신세계를 다음과 같이 스케치한다.

자신의 **직관**을 일반화하고 자신의 느낌으로 법칙을 수립하는 데에 성공한다면 근본적으로 이것은 인간이 자신으로부터 이를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추구하는 바이며 얼마나 높은 정도로 이미 이에 도달하셨습니까! [...] 그래서 저는 자웅동체 같은 존재로서 **개념**과 직관, 규칙과 느낌, 기술적 머리와 천재 사이를 부유합니다. [...] 보통 제가 철학해야 할 때에는 시인이 저를 앞질러가고 제가 시를 지으려는 때에는 **철학적 정신**이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이 나의 **추상적 사고**를 방해하고 **차가운 오성**이 나의 시문학을 방해하는 일을 지금도 저는 충분히 자주 겪습니다.(BW 19) [강조: 인용자]

이렇게 편지에서 괴테의 문학적 발전 과정을 묘사하고 그를 쉴러 자신과 대비시키기 위해 동원한 고대 그리스와 근대 복구, 직관과 추상적 사고(또는 개념, 철학적 정신, 오성)의 대비는 후일 「소박문학과 감상문학에 관하여」의 기본적인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소박성’(das Naive)은 모세스 멘델스존, 디드로, 빌란트, 칸트, 줄처 등 18세기 후반의 많은 사상가들이 관심을 가졌던 주제로 쉴러는 이미 1793년부터 이에 대해 글을 쓰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sup>43</sup> 이 논문에서처럼 소박성과 감상성,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의

43 Friedrich Schiller (1992), p. 1420. 위에서 언급한 여러 논자들의 소박 개념에 대해서는

유형학으로 논의가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뵐러의 주장처럼 괴테와의 만남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44</sup> 「소박문학과 감상문학에 관하여」는 3부로 나뉘어 『호렌』에 게재되는데 제1부 「소박성에 관해」(Über das Naive)는 1795년 11월호에, 제2부 「감상 시인」(Die sentimentalischen Dichter)은 12월호에, 제3부 「소박 시인과 감상 시인에 관한 논문의 결론」(Beschluß der Abhandlung über naive und sentimentalische Dichter)은 1796년 1월호에 실린다.

괴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직관적 정신”(der intuitive Geist)과 “사변적 정신”(der spekulative Geist)(BW 15)을 대비시켰던 뵐러는 이 논문에서 소박 시인과 감상 시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즉 그 자체로 자연인 시인은 소박 시인이고, 자연을 추구하는 시인은 감상 시인이다(NS 732). 뵐러에 따르면, 인간이 아직 조화로운 통일성의 소유자로서 활동하는 자연스러운 소박의 상태에서 시인은 현실적인 것을 가능한 한 완전하게 모방하면 되지만, 자신의 본성(자연) 전체가 조화롭게 함께 작용하는 것이 순전한 이념일 뿐인 문화의 상태에서 시인은 이상을 묘사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대 시인이 자연, 감각적 진리, 생동하는 현재를 통해 우리를 감동시킨다면, 후자에 해당하는 근대 시인은 이념들을 통해 우리를 감동시킨다. 그러나 근대에도 소박 문학이 존재하고 고대 시인들 중에도 감상 시인이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 작가 내에서는 물론 한 작품 내에서도 종종 이 양자가 결합해 있다는 설명을 각주에다 덧붙임으로써 뵐러는 소박 시인과 감상 시인이라는 구분이 반드시 시대와 결부된 규정은 아님을 밝힌다(NS 734-735). 즉 뵐러의 글에서 소박과 감상은 “시대 개념”(Epochenbegriffe)이기도 하지만 “시를 짓는 방식과 느끼는 방식”(Dichtungs- und Empfindungsweise)<sup>45</sup>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3부 결론에서 뵐러는 소박 시인과 감상 시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다음은 참조. 페터 안드레 알트(2015), pp. 326-329.

44 Michael Böhler (1980), p. 59.

45 Friedrich Schiller (1992), p. 1422.

소박 시인에게 자연은 **분열되지 않은 통일성의 소유자로서** 활동하고 어떤 순간에도 독립적이고 완성된 전체로 존재하며 인간성을 그 완전한 내용에 따라 **현실 속에서** 묘사할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었다. **감상 시인에게** 자연은 **추상적 사고로 인해** 그의 내면에서 사라진 저 통일성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다시 생겨나게 하고 인간성을 **자기 내면에서** 완전하게 만들며, 제한된 상태에서부터 **무한한 상태로** 넘어가는 힘을 주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 그렇게 하려는 생생한 충동을 아로새겼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완전하게 표현하는 것은 양자의 **공동 과업**이다. (NS 776-777) [강조: 인용자]

소박 시인은 항상 “분열되지 않은 통일성의 소유자로서” 존재하며 인간성을 “현실 속에서” 완전하게 그려 낼 수 있는 반면에, 감상 시인은 “추상적 사고로 인해” 상실한 통일성을 자신의 내면에서 다시 생성시켜 인간성을 “자기 내면에서” 완전하게 만들고자 하며 “무한한 상태로” 이행하고자 한다. 소박 시인과 감상 시인이라는 개념 짙은 제3부의 뒷부분에 이르면 현실주의자(Realist)와 이상주의자(Idealist)로 대체된다. 쉐러는 다양한 방식으로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를 대비시키고 있는데 예컨대 현실주의자는 “자연의 필연성을 통해” 규정되고, 이상주의자는 “이성의 필연성을 통해”(NS 799) 규정된다. 빙켈만(Winckelmann)을 정점으로 하는 18세기 후반의 고대 그리스 숭배나 논문의 앞부분(제1부)에 나오는 “모든 진정한 천재는 소박해야 한다”(NS 718)는 주장을 떠올리면, 고대 그리스/소박 시인/현실주의자와 근대 복구/감상 시인/이상주의자라는 두 범주는 언뜻 보기에 우열이 있는 가치평가적 개념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쉐러는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를 구분하는 대목에서 이러한 구분이 양자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를 선호하고 나머지를 배제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NS 798). 또한 경험과 이성이 각각 고유한 특권을 지니고 있으므로 서로가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하는데(NS 807) 경험은 현실주의자의 강점이고 이성은 이상주의자의 강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제3부에 이르면 감상 시인 또는 이상주의자의 지위는 소박 시인 또는 현실주의자와 동등한 것으로 확연히 높이 평가된다.<sup>46</sup> 1794년 여름의 편지에서 쉴러는 자신과 괴테를 대비시키며 상대방은 높이고 자신은 낮추었던 반면에, 1년여의 시간이 흐른 후 이제 그는 괴테로 대표되는 소박시인과 자신으로 대표되는 감상시인을 서로 다른 감수성과 창작 방식을 지녔지만 “공동 과업”을 추구해야 할 동등한 동료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듯 괴테에게 존경심과 진심이 어린 편지를 보내며 둘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기 시작한 1794년 여름부터 1795년 말 『호렌』에 「소박문학과 감상문학에 관하여」를 쓰기까지 쉴러는 시인으로서 괴테와 자신을 차별화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괴테와 쉴러의 관계가 그렇게 서로 긴밀하게 교류하는 사이로 발전하지 않았더라면 쉴러가 애초에 논문을 쓰려고 구상하고 있었던 ‘소박성’이라는 주제가 소박문학과 감상문학의 관계로까지 확장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논문 역시 넓은 의미에서 두 사람의 협력의 산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6 페터 손디(Peter Szondi)는 위의 인용문 근처의 각주에서 쉴러가 언급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감상성의 지위를 높인다. 쉴러는 이 각주에서 소박시인과 감상시인이 지닌 감각방식의 관계는 칸트의 제1범주와 제3범주의 관계와 같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박한 감각의 반대는 그러니까 성찰하는 오성이며, 감상적 기분은 **반성의 조건들 하에서도** 내용상으로 소박한 감각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이다.”(NS 777) [강조: 원저자] 즉 쉴러의 당대에 나타나는 소박성은 근대의 추상적 사고가 지배하는 세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취한 감상적 문화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제 감상성은 더 이상 극복되어야 할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라 근대적 특성을 띤 이성의 영역이 된다. 손디는 이 대목에서 쉴러가 소박과 감상의 대립을 헤겔적인 의미에서 지양했다고 본다. Friedrich Schiller (1992), p. 1424; Peter Szondi (1978), “Das Naive ist das Sentimentalische,” *Schriften* (hrsg. von Jean Bollack u. a.), Bd. 2, Frankfurt am Main: Suhrkamp, p. 104. 괴테의 소박한 예술 세계도 여기에 비추어 보면 오직 감상적 경향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Peter-André Alt (2009), p. 221.

#### 4. 나오며

지금까지 셸러가 책임편집인으로서 발간한 월간지 『호렌』을 중심으로 괴테와 셸러의 문학적 협력의 초기 국면을 살펴보았다. 1794년 6월 새로 창간하는 잡지의 편집위원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셸러의 초청장에 괴테가 수락 의사를 밝힘으로써 두 사람의 협력은 시작된다. 셸러의 요청으로 괴테는 「독일 피난민들의 환담」을 집필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1790년에 완성했지만 그때까지 발표하기를 주저했던 「로마의 비가」를 『호렌』의 지면을 채우기 위해 내놓기도 했다. 두 사람은 잡지에 실을 서로의 원고를 사전에 검토하고 애정 어린 감상과 비평을 주고받았다. 1795년 1월에 발간된 『호렌』의 첫 호를 나란히 장식한 괴테의 「독일 피난민들의 환담」과 셸러의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는 당대에 가장 중요하고도 민감한 이슈였던 프랑스 혁명에 대한 두 사람의 공통된 문제의식을 잘 보여 준다. 즉 셸러의 ‘미적 교육’과 괴테의 ‘사교적 교양’은 두 사람이 프랑스 혁명으로 인한 사회의 분열상과 무질서, 폭력을 극복하고 질서 있고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갈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1795년 11월부터 1796년 1월까지 『호렌』에 실린 셸러의 「소박문학과 감상문학에 관하여」는 셸러가 괴테와 본격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시인으로서 서로의 차이에 대해 고찰한 내용을 역사철학적인 차원으로 발전시킨 글이다. 소박성과 감상성이라는 대립적인 개념의 단초가 이미 나타나는 1794년 여름의 편지에서 셸러는 괴테를 찬양하고 자신은 낮추었던 반면에, 「소박문학과 감상문학에 관하여」에서는 각각 괴테와 셸러 자신으로 대표되는 소박시인과 감상시인을 단지 서로 다른 감수성과 창작방식을 지닌 동등한 존재로 그려냄으로써 감상시인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호렌』을 중심으로 한 협력의 초기 국면은 괴테와 셸러가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며 내적 결속을 다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괴테와 셸러의 문학적 협력은 셸러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속되

는데, 두 사람은 풍자적인 내용의 이행시 모음집 「크세니엔」을 공동으로 작업하기도 하고 ‘발라드의 해’로 불리는 1797년에는 함께 수많은 발라드를 써내기도 했다. 또한, 두 사람은 서로 구상 단계의 작품을 집필하도록 격려하고,<sup>47</sup> 첫 독자가 되어 서로의 원고를 읽고 찬사와 비판이 섞인 비평을 내놓기도 하고 구체적인 수정 제안을 하기도 했다. 예컨대,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를 읽어 보면 괴테가 당시 미발표 원고 상태였던 『빌헬름 마이스터의 연극적 사명』을 개작하여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로 완성해 내는데에 쉴러의 격려와 비평이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 알 수 있다(BW 125-216).<sup>48</sup> 그 밖에도 1791년부터 1817년까지 바이마르 궁정극장의 극장장이었던 괴테는 무대에 올릴 작품 상당수의 대본 각색을 쉴러에게 맡기고 공동으로 연출하는 등 두 사람은 연극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했다.<sup>49</sup> 『호렌』 이후의 협력 과정에서 두 작가의 공동의 지향점과 각자의 개성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괴테와 쉴러의 동맹이 점차 굳건해지면서 후일 바이마르 고전주의로 묶이게 된 이 두 사람의 문학세계가 초기 낭만주의자들과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게 되는지 등 괴테와 쉴러의 문학적 협력과 관련하여 남아 있는 문제들은 차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 두고 글을 맺는다.

47 예컨대, 쉴러는 괴테에게 『파우스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권유했고, 괴테는 쉴러에게 『발렌슈타인』을 완성하도록 격려했다. 괴테와 쉴러의 공동작업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페터 안드레 알트(2015), pp. 257-264; 임홍배(2016), 『독일 고전주의』, 연세대학교 대학 출판문화원, 36-40.

48 Günter Saße (2005), “‘Gerade seine Unvollkommenheit hat mir am meisten Mühe gemacht.’ Schillers Briefwechsel mit Goethe über »Wilhelm Meisters Lehrjahre«,” *Goethe-Jahrbuch* 122, pp. 76-91.

49 페터 안드레 알트(2015), pp. 647-667.

## 참고문헌

### 자료

- Goethe, Johann Wolfgang (1994), "Glückliches Ereignis," *Werke. Hamburger Ausgabe in 14 Bänden, Bd. 10* (textkritisch durchgesehen von Lieselotte Blumenthal und Waltraud Loos, kommentiert von Waltraud Loos und Erich Trunz), München, pp. 538-542. [HA 10]
- Goethe, Johann Wolfgang (1990), *Briefwechsel zwischen Schiller und Goethe in den Jahren 1794 bis 1805, Sämtliche Werke nach Epochen seines Schaffens, Bd. 8.1* (hrsg. von Manfred Beetz), München: Carl Hanser Verlag. [BW]
- Goethe, Johann Wolfgang (1988), "Unterhaltungen deutscher Ausgewanderten," *Sämtliche Werke nach Epochen seines Schaffens, Bd. 4.1* (hrsg. von Reiner Wild), München: Carl Hanser Verlag, pp. 436-550. [MA 4.1]
- Goethe, Johann Wolfgang (1987), *Sämtliche Werke. Briefe, Tagebücher und Gespräche, Bd. 1* (hrsg. von Karl Eibl), Frankfurt am Main: Deutscher Klassiker Verlag. [FA 1]
- Schiller, Friedrich (2004), *Sämtliche Werke in 5 Bänden, Bd. 1, Gedichte · Dramen 1* (hrsg. von Albert Meier), München: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 Schiller, Friedrich (1992), "Ankündigung. Die Horen, eine Monatschrift, von einer Gesellschaft verfaßt und herausgegeben von Schiller," *Friedrich Schiller. Werke und Briefe in zwölf Bänden, Bd. 8, Theoretische Schriften* (hrsg. von Rolf-Peter Janz), Frankfurt am Main: Deutscher Klassiker Verlag, pp. 1001-1005. [A]
- Schiller, Friedrich (1992), *Friedrich Schiller. Werke und Briefe in zwölf Bänden, Bd. 8, Theoretische Schriften* (hrsg. von Rolf-Peter Janz), Frankfurt am Main: Deutscher Klassiker Verlag.
- Schiller, Friedrich (1992), "Ü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 in einer Reihe von Briefen," *Friedrich Schiller. Werke und Briefe in zwölf Bänden, Bd. 8, Theoretische Schriften* (hrsg. von Rolf-Peter Janz), Frankfurt am Main: Deutscher Klassiker Verlag, pp. 556-676. [E]
- Schiller, Friedrich (1992), "Über naive und sentimentalische Dichtung," *Friedrich Schiller. Werke und Briefe in zwölf Bänden, Bd. 8, Theoretische Schriften* (hrsg. von Rolf-Peter Janz), Frankfurt am Main: Deutscher Klassiker Verlag, pp. 706-810. [NS]
- Goethe, "Goethes Äußerungen zu den »Römischen Elegien«, " goethezeitportal, 2022.3.19. <http://www.goethezeitportal.de/wissen/projektetool/goethe-italien/roemische-elegien/goethes-aeusserungen.html>
- Schiller, *Die Horen*, wikisource, 2022.3.19. [https://de.wikisource.org/wiki/Die\\_Horen](https://de.wikisource.org/wiki/Die_Horen)
- Schiller, *Die Horen*, Digitale Sammlungen, Universität Bielefeld, 2022.2.17. [http://ds.ub.uni-bielefeld.de/viewer/resolver?urn=urn:nbn:de:0070-disa-2104386\\_001\\_10](http://ds.ub.uni-bielefeld.de/viewer/resolver?urn=urn:nbn:de:0070-disa-2104386_001_10)

## 논저

- 고규진(2011), 「문학정전의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 연구: “바이마르 고전주의”를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54, pp. 97-112.
- 김수용(1998), 『예술의 자율성과 부정의 미학: 독일 이상주의 문학 연구』, 연세대학교 출판부.
- 튀디거 자프란스키(2017), 호모포에티카 역, 『괴테: 예술작품 같은 삶』,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 이관우(2014), 「괴테의 『동화』 고찰: 대립의 극복을 통한 이상세계의 구현」, 『독일언어문학』 65, pp. 143-166.
- 인성기(2010), 「독일 고전주의 예술관의 두 기초: 괴테의 독자적 자연감정과 실리의 대자적 역사의식」, 『괴테연구』 23, pp. 51-74.
- 임홍배(2016), 『독일 고전주의』,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장영은(2007), 「어린이를 위한 독일 메르헨: 아동문학으로서의 독일 메르헨에 대한 역사적 고찰」,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16, pp. 395-414.
- 페터 안드레 알트(2015), 김홍진·최두환 역, 『실러 2』, 아카넷.
- Alt, Peter-André (2009), *Schiller. Eine Biographie. Leben-Werk-Zeit*. Bd. 2, München: Verlag C. H. Beck.
- Bauschinger, Sigrid (1985), “Unterhaltungen deutscher Ausgewanderten (1795),” *Goethes Erzählwerk* (hrsg. von Paul Michael Lützeler u. James E. McLeod), Stuttgart: Reclam, pp. 134-167.
- Borchmeyer, Dieter (1998), *Weimarer Klassik. Portrait einer Epoche*. Weinheim: Beltz Athenäum.
- Böhler, Michael (1980), “Die Freundschaft von Schiller und Goethe als literatursoziologisches Paradigma,” *Internationales Archiv für Sozial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5, pp. 33-67.
- Hofmann, Michael (2005), “Schiller als Herausgeber von Zeitschriften,” *Schiller-Handbuch. Leben-Werk-Wirkung* (hrsg. von Matthias Luserke-Jaqui), Stuttgart u. Weimar: J.B. Metzler, pp. 520-527.
- Misch, Manfred (1998), “Schillers Zeitschriften,” *Schiller-Handbuch* (hrsg. von Helmut Koopmann), Stuttgart: Alfred Kröner Verlag, pp. 743-757.
- Saße, Günter (2005), “‘Gerade seine Unvollkommenheit hat mir am meisten Mühe gemacht’. Schillers Briefwechsel mit Goethe über »Wilhelm Meisters Lehrjahre«,” *Goethe-Jahrbuch* 122, pp. 76-91.
- Szondi, Peter (1978), “Das Naive ist das Sentimentalische. Zur Begriffsdiagnostik in Schillers Abhandlung,” *Schriften* (hrsg. von Jean Bollack u. a.), Bd. 2, Frankfurt am Main: Suhrkamp, pp. 59-105.
- Wild, Reiner (1998), “Einleitung,” *MA* 4,1, pp. 1040-1053.

Zumbusch, Cornelia (2019), *Weimarer Klassik. Eine Einführung*. Stuttgart: J.B. Metzler.

원고 접수일: 2022년 4월 11일, 심사 완료일: 2022년 4월 23일, 게재 확정일: 2022년 5월 5일

## ZUSAMMENFASSUNG

# Literarische Zusammenarbeit zwischen Goethe und Schiller

Cho, Seonghee

In Bezug auf *Die Horen*,  
das Organ der Weimarer Klassik

In der deutschen Literaturgeschichte lässt sich die Weimarer Klassik ohne das Bündnis zwischen Goethe und Schiller nicht erklären, das von 1794 bis zu Schillers Tod 1805 etwa 10 Jahre andauerte. Die von Schiller als Chefredakteur gegründete allgemeine Monatszeitschrift *Die Horen* (1795-1797) gab den entscheidenden Anlass für die beiden, sich auszutauschen, eng miteinander zusammenzuarbeiten und gegenseitiges Vertrauen aufzubauen. In dem vorliegenden Beitrag wird die erste Phase der literarischen Zusammenarbeit zwischen Goethe und Schiller rekonstruiert. Zunächst werden der Gründungsprozess der *Horen* und die in Schillers Ankündigung geäußerten Ziele der Zeitschrift betrachtet, dann werden die Hauptwerke der beiden skizziert, die dort erstmals veröffentlicht wurden. Anschließend wird anhand von Goethes *Unterhaltungen deutscher Ausgewanderten* und Schillers *Ü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 in einer Reihe von Briefen*, die im ersten Stück der *Horen* nebeneinander veröffentlicht wurden, auf ein gemeinsames Problembewusstsein für das unerhörte historische Ereignis

---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der Französischen Revolution eingegangen. Schließlich wird verfolgt, wie Schiller die Überlegungen zu seiner eigenen und Goethes Individualität als Dichter zu einer allgemeinen Theorie erweiterte. Die Abhandlung *Über naive und sentimentalische Dichtung*, die ebenfalls in den *Horen* veröffentlicht wurde, wird dabei zusammen mit dem Briefwechsel untersucht. Kurzum, die Anfangsphase der literarischen Zusammenarbeit rund um *die Horen* lässt sich als ein Prozess verstehen, in dem Goethe und Schiller Gemeinsamkeiten und Unterschiede erkennen und eine innere Verbundenheit festigen.

**Schlüsselbegriffe** Goethe, Schiller, Weimarer Klassik, *Die Horen*, Französische Revolution, ästhetische Erziehung, Unterhaltungen deutscher Ausgewanderten, naive Dichtung, sentimentalische Dichtung

